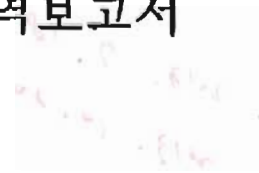


중국 남방(운남성, 귀주성) 사역보고서



9교구 1 팀장 김판봉 안수집사

1. 선교 개요

9교구 선교1팀(중국)은 주님의 은혜 속에 2003. 6. 3.(월)부터 6. 11. (화)까지 중국 운남성 선위시와 연접 귀주성 백과진 도시에 선교를 다녀왔는데, 이하에서는 중국 공안에 붙잡혀 사도 바울과 같은 옥고의 고난을 치른 전만 사역과 그 이후 다른 성으로 쫓겨 난 후만 사역에 대하여 간략히 기술하고자 한다.

2. 중국 운남성 쉬안웨이시(宣威市) 선교와 관련하여

운남성 쉬안웨이시 동산진의 깊은 협곡 2천미터 높이 산골 '거거마을'에서 복음을 담대히 전하였다. 대부분 불신자이거나 부슬림인 지역에서 정말 보석과도 같은 예수를 믿는 형제(40대 중반)를 만났을 때 얼마나 기쁘고 반갑던지, 별도로 암기하여간 중국말 주기도문으로 은혜를 같이 나누며 믿음이 더욱 장성해 지기를 기도하였다. 위 거거마을에서 사역을 마친 후 내려 오다가 '와로마을'에 들리게 되었는데, 마침 마을 주민들이 하천에서 제방을 쌓는 작업을 하고 있어, 우리 팀 모두는 하천을 마주하고서 말씀과 찬양운동으로 복음을 담대히 전하였다. 팀장인 내가 신발을 벗고서 하천을 건너가 그들의 제방쌓는 작업에 동참하자 바로 뒤이어 이상배 총무 집사님도 물을 건너와 제방쌓는 작업을 같이 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다른 팀원들은 계속 찬양과 운동으로 복음을 전하였다.

10/5. $\frac{1}{2} \times \frac{1}{2} \times \frac{1}{2}$ |
 $\frac{1}{2} \times \frac{1}{2} \times \frac{1}{2}$ or $\frac{1}{8}$.

· 217. 7. 18.
· 217. 10. 20.

그리고 마을을 떠나려 하였을 때, 주민들 중 한 사람이 엄지손가락을 내세우며 중국말로 “쭈이(우리말 : 최고)”라며 감사를 표하였다. 모두들 감동의 도가니속에 위 와보마을을 출발한지 3분도 되지 아니하여 갑자기 맞은 편 도로에서 공안차량이 우리 차량을 세우며 운전기사를 내리게 하더니 인근 공안청으로 끌고 가는 것이었다. 나는 2년전 내몽골 울란하우터 선교시 공안청에 8시간 넘게 조사를 받은 기억이 있어, 팀원들에게 격성하지 말고 담대한 것과 이런 조사는 최소 7-8시간은 족히 소요되므로 기도로 부장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공안청(경찰시)에서 공안들은 한문을 써가며 여기에 온 목적이 무엇이나고 물었지만, 팀장인 나는 중국말은 전혀 못하는 것처럼 영어를 말할 줄 아는 통역을 불러 달라고 요구하여, 인근 중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치는 2명의 젊은 여선생이 2시간 후에 경찰시에 당도하였다. 난 영어로 많은 한국인들이 중국으로 여행을 오고, 또한 많은 중국인들이 한국으로 여행을 오는, 특히 아름다운 제주도로 여행을 오는 중국사람들이 많다는 점을 강조하며, 우리는 8명 모두가 오지탐험 여행가(pioneer travelers)임을 누차 강조하였다. 경찰서에서는 3-4명의 공안들이 돌아가며 이것 저것을 물어 보고 내일 아침을 먹고 가야 한다는 말도 되지 않는 소리를 하는 경우도 있어, 나는 팀장으로서 단호히 No! 인을 선포하였다. 주님의 은혜 속에 우리 팀은 인신억류 5시간만에 완전 자유를 얻기는 하였지만, 나는 쉬안웨이시에서 처음 만난 평장화 운전기사를 전체 사역기간 내내 활용하고자 했던 안일한 생각에 대하여 깊은 회개를 하고서, 이제 더 이상 운남성에서는 신분이 노출되어 체류할 수 없는 관계로 인근 귀주성으로 사역지를 옮기게 되었다.

3. 중국 귀주성 백과진 근처 지역에 대한 선교와 관련하여

주님의 명령에 따라 귀주성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는데, 아이들이 얼마나 찬양과 율동을 잘 따라 하던지, 어느새 감동의 눈물이 내 눈에 고여 있었다. 식당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마을에서도 숙소 주인에게도 십자가 복음을 담대히 전하였다. 선교 출발 하루 전 외선부 박광용 집사로부터 중국말로 녹음된 시편 23편의 설교내용을 전송받아 내 휴대폰에 저장해 놓았는데, 이는 혹 주일에 현지에서 가정예배가 드려질 수 있는 경우를 대비하고자 함이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한국으로 출발하는 날 아침 위 예수님을 영접한 명장화 운전기사(가명)를 우리가 묵고 있는 숙소에 보내시어 같이 아침경건회(6시 30분)의 예배를 드리게 하시는 놀라운 성령체험의 역사를 펼치시었다. 팀장이 먼저 한국말로 설교내용을 최대한 빨리 읽어 팀원들에게 말씀을 전한 후, 새신자 명장화에게 핸드폰에 저장된 위 중국어 설교내용을 듣게 하였을 때, 우리 모두와 명장화의 눈에는 눈물이 글썽 거리며 서로를 안아 주며 “예수 아이 니, 칭쌩썬 예수바(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을 믿으세요)”를 연발하였다. 마가의 나랏방에 임재한 성령은 우리 중국팀 선교의 방에도 그대로 같이 하셨다. 그리고 명장화는 말하였다. 앞으로 자신도 자기 차에 탄 손님들에게 예수님을 전 하겠다고

4. 선교보고서의 작성을 마치며

선교는 영적인 싸움이며 기도의 동역없이는 결코 씨조차 뿌리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을 깨달은 선교사역의 기간이었다.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 드리며 해외 선교만이 아니라, 가정선교, 직장선교, 이웃선교등까지 관심을 갖게 된 소중한 시간이었다.